

## 적재량 최대 2780리터... '캠핑의 절대강자'

짐 가득 실어도 세단 같은 안락함  
고속도로 실연비 약 12.5km 수준  
1열 등받이서 트렁크까지 230cm  
트레일러 히치 리시버·커넥터 기본



재규어, 디자인·성능 확 바뀐 뉴 F-PACE 출시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야의 럭셔리 SUV 'F-PACE'가 디자인과 성능을 대폭 강화한 부분 변경 모델인 '뉴 F-PACE(사진)'로 돌아왔다. 디자인 변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프론트 그릴이다. 심플한 육각형 그릴에서 다이아몬드 느낌의 양각형 3D 메시 패턴 그릴로 변신했다. 보닛 디자인도 개선했다. 단차가 있는 디자인에서 단차 없이 그릴 바로 위까지 이어지는 부드러운 곡면 처리를 통해 세련된 느낌을 더했다. 프론트 범퍼는 하부 벤트를 크게 디자인해 더욱 다부진 모습이다.

인테리어도 개선했다. 기존 스크린 대비 48% 더 커지고 3배 더 밝아진 11.4인치 커브드 HD 터치스크린과 더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한 재규어 드라이브 셀렉터를 적용해 실내 분위기를 하이테크하게 바꿨다. 성능과 편의성을 개선한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PIVI Pro도 탑재했다. 엔진 성능도 강화했다 새로운 인제니움 2.0리터 인라인 4 터보 디젤 엔진이 장착돼 최고 출력 204마력, 최대 토크 43.9kg·m의 넉넉한 성능을 발휘한다. 전체적인 중량을 2kg 줄이고, 소음을 2.0dB 줄였으며, 마일드 하이브리드(MHEV) 시스템을 새롭게 적용해 효율성과 가속 성능을 끌어올렸다. 재규어 뉴 F-PACE D 200 S는 7350만 원, D200 SE는 7940만 원이다.

현대차 사회공헌활동 영상 '퀘스타 어워즈' 수상



현대자동차그룹의 '보다 혁신적인 사회공헌을 위해'라는 제목의 사회공헌활동 영상(사진)이 '퀘스타 어워즈 2021'의 '지속가능성·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문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 머콕사 주관의 '퀘스타 어워즈'는 매년 약 200개 글로벌 기업에서 출품한 홍보영상 중 최고의 작품을 선정해 시상한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지속가능성·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문에서 금상과 은상이 없는 동상을 수상하며 독창성과 메시지 전달능력, 디자인 등을 인정받았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퀄리티 높은 사회공헌 활동 커뮤니케이션 제작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룹의 노력을 알리는 한편 고객들이 현대차그룹을 보다 가깝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편집 | 김대진 기자 bong82@donga.com



1 캠핑 마니아들에게 주목받는 쉐보레 트레버스 외관. 2 대충 쌓아도 4인 가족용 캠핑용품은 넉넉하게 실을 수 있다. 3 2열과 3열이 짐으로 막혀 있어도 선명하고 깨끗하게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후방 디스플레이 룸미러. 사진 | 원성열 기자

전장(mm)	5200
전고(mm)	1785
전폭(mm)	2000
축거(mm)	3073
공차 중량(kg)	2090
엔진	3.6L 가솔린 V6 직분사
배기량(cc)	3564
최대 출력(ps / rpm)	314 / 6800
최대 토크(kg·m / rpm)	36.8 / 2800
변속기	9단 자동
연비(km/L)	복합 8.3, 고속 10.3, 도심 7.1

리의 경우 2열과 3열이 짐으로 꽉 찬 상황에서는 주행 중이나 주차시 후방을 확인할 수 없지만, 후방 디스플레이 룸미러는 어떤 상황에서도 깨끗한 후방 영상을 확인할 수 있어 캠핑 마니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옵션이다.

### ● '비교불가' 압도적 공간에 반하다

트레버스의 트렁크 적재량은 651리터다. 3열 시트만 접으면 1636리터, 2열과 3열을 모두 접으면 2780리터까지 늘어난다. 용량으로만 비교하면 감이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직접 줄자로 확인해봤다.

1열 등받이 부분에서 트렁크 끝까지 가아 울 뉴 스프린트(2015년형)는 201cm, 트레버스는 이보다 29cm가 더 긴 230cm였다. 이 압도적인 길이 차이 덕분에 중형 SUV에서는 2열과 트렁크 전체를 활용해 테트리스 수준으로 정교하게 쌓아야 겨우 탑재할 수 있는 분량의 캠핑용품들이 쉐보레 트레버스에는 여유롭게 실린다.

순정 트레일러 히치 리시버와 커넥터가 기본 사양에 포함돼 별도의 차량 개조 없이도 최대 2.2톤의 트레일러나 카라반을 체결해 운행할 수 있다는 점도 트레버스의 매력 요소다. 트레버스의 가격은 트림에 따라 4520만~5522만 원이다.

연천 |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캠핑에 빠져 차를 바꿨다”. 터무니없는 이야기같지만 캠핑 동호회에서는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사연이다.

처음에는 텐트와 코펠, 가스렌지 등 간단한 용품 몇 가지만 있으면 캠핑을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캠핑의 매력에 빠져들수록 개미지옥이라 불리는 방대한 캠핑용품 시장에서 허우적대며, 승용차로는 해결 불가능한 수준의 용품을 구입하게 된다. 승용차에서 중형 SUV로 바뀌도 적재 공간은 늘 부족하다.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사람이 타야 할 공간에 짐을 싣게 되고, 사람은 짐처럼 포개져서 떠나는 상황이 생긴다. 결국 많은 캠핑 마니아들이 대형 SUV나 미니밴으로 눈길을 돌리는 이유다.

국내 최대 전장(5200mm)을 지녀 '슈퍼사이즈 SUV'라는 별칭을 가진 대형 SUV 트레버스라면 캠핑용품의 압박에서 벗어나 한결 편안한 여행과 캠핑이 가능할까. 트레버스 최상위 트림인 레드라인(5522만 원) 모델을 타고 직접 캠핑을 떠나봤다.

### ● 고급 대형 세단급 주행 감성

트레버스 3열과 트렁크에 캠핑용품을 가득 싣고 경기도 연천의 한 캠핑장으로 향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기대 이상으로 편안한 주행 감성이다.

3.6리터 6기통 직분사 가솔린 엔진과 하이드라매틱 9단 자동변속기가 조합된 트레버스는 314마력의 출력과 최대토크 36.8kg·m의 넉넉한 파워를 갖추고 있다. 중형 SUV라면 2열과 트렁크 공간을

확 채운 정도의 짐을 싣고 있는데, 그 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여유로운 출발과 항속 능력을 보여줬다. 5링크 멀티 서스펜션을 적용했으며, 전체적인 바디 감성이 뛰어나 승차감만 놓고 보자면 고급 대형 세단 수준의 안락함이 느껴진다.

부드럽고 조용하며 필요한 순간에 파워풀한 출력을 발휘하는 3.6리터 가솔린 엔진의 매력에 주는 여유는 시승이 끝난 뒤에도 꽤 길게 이어진다. 물론 연비에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고속도로에서의 실연비는 12.5km 수준을 기록했고, 시내 주행에서는 8.7km를 기록했다. 모두

공인 연비를 웃도는 수준이다.

인테리어 감성이 조금 투박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사실 편의사양은 꽤 충실한 편이다. 차박을 할 때 뛰어난 개방감의 듀얼 패널 선루프, 여유롭고 프라이빗한 여행이 가능한 2열 독립식 캡틴 시트,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보스 프리미엄 10스피커 등이 장착되어 있다.

레드라인에는 주차시 버드뷰가 가능한 서라운드 비전카메라와 전용 고해상도 광각 카메라를 사용해 후방 영상을 디지털 방식으로 보여주는 후방 디스플레이 룸미러가 적용되어 있다. 일반 룸미

## 르노삼성 '인카페이먼트'...차 안에서 편의점 주문·수령 OK!

2022년형 XM3에 최초로 적용  
7월 중 CU 1000여곳서 서비스

르노삼성자동차가 차안에서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 상품을 주문한 뒤, 차에서 내리지 않고 주문한 상품을 수령할 수 있는 혁신적인 간편 결제 시스템 '인카페이먼트(In-Car Payment·사진)'를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모빌리티 커머스 플랫폼 스타트업인 '오윈(Owin)'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개발한 인카페이먼트 시스템은 이달 초 출시한

2022년형 XM3에 최초로 적용된다.

차량 내 결제 시스템은 현대차그룹이 '카페이(car pay)'라는 이름으로 먼저 출시했지만, 현재 SK주유소(6월부터 S-OIL도 포함 예정)와 파킹클라우드(아이파크) 가맹 주차장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반면 인카페이먼트는 편의점, 주유소, 카페, 식당 등 훨씬 더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하고, 국내 최초로 차안에서 다양한 식음료를 결제하고 수령까지 가능하도록 해 더욱 진화된 언택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편의점의 경우 7월 중 전국 1000여 개 C

U 편의점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차장에서 인카페이먼트로 구매 가능한 편의점 상품들을 선택해 결제를 마치면 편의점 도착 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구매된 물품을 전달 받을 수 있다. 인카페이먼트로 주문 가능한 편의점 수와 구매 가능한 상품 종류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GS칼텍스 주유소(현재 전국 380곳, 추가 확대 예정)에서도 인카페이먼트를 이용할 수 있다. 유종을 선택하고 결제를 마치면, 사전에 주유기 번호를 선택할 필요 없이 차량과 주유기가 주유량과 결제 정보를 통신으로 교환해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다.



특정 주유기 번호를 사전에 입력하고 해당 주유기만을 이용해야 하는 타사 시스템과 차별화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인카페이먼트를 통해 차 안에서 주문과 상품 수령을 할 수 있는 커피숍과 식당 수를 늘리고, 주차장 결제나 전기차 충전 결제 등 인카페이먼트 서비스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원성열 기자

### 뇌가 색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 강주현의 퍼즐월드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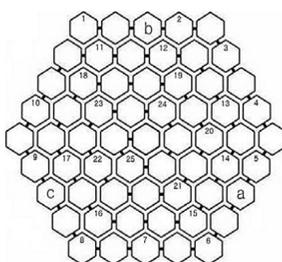
#### ■ 스토쿠문제

		2		9				
	1	9				2	3	
	3		1		5		4	
9		3	2		8		7	
			8		3			
2		6		1		4		3
	9		4		6		2	
	2	7				6	9	
			3	2				

#### ■ 스토쿠정답

8	2	9	6	8	7	9	1	5
1	2	8	9	1	8	5	2	3
6	5	7	1	6	9	8	2	4
2	9	6	8	9	9	1	7	3
7	1	8	7	2	6	5	4	9
6	7	2	5	9	1	2	3	8
5	8	2	8	7	6	1	9	4
9	8	1	6	8	2	9	5	7
1	9	8	6	2	6	7	9	5
5	2	6	7	1	7	9	8	3
7	8	9	9	6	2	1	7	4
2	5	1	7	9	8	9	2	6
8	9	2	6	2	1	7	5	8
9	2	7	2	6	5	8	1	9
6	8	5	1	7	9	2	6	3
1	6	2	8	1	8	5	9	7

#### ■ 낱말문제



01. 동쪽·서쪽·남쪽·북쪽이라는 뜻.  
02. 많은 사람이 야단스럽게 부산을 떨며 법석이는 상황.  
03. 통신사에서 본사와 연락하도록 짜 놓은 연락 체계.  
04. 멀리 있는 물체를 크게 보이도록 만든 장치.  
05. 하늘을 놀

라게 하고 땅을 뒤흔든다는 뜻.  
06.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바로 사 버리는 사람이 믿는 가상의 신.  
07. 조선 시대에 백성이 억울한 일을 하소연할 때 치게 하던 북.  
08. 발전의 속도나 규모가 높은 정도로 빨리 이루어짐.  
09. 대문 밖이나 처마 끝에 달아 두고 밤에 불을 켜는 등.  
10. 등잔 밑이 어둡다는 뜻.  
11. 경치 좋기로 이름난 곳.  
12. 대도시의 지하도·지하철역 등에서 볼 수 있는 상징가.  
13. 손가락에 치장으로 끼는 두 쪽의 고리.  
14.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수양하는 중의 의복 따위.  
15. 일정한 원칙 없이 정세에 따라 이로운 쪽으로 행동하는 경향.  
16. 조선 때 행정부의 최고 기관.  
17. 남편 주장에 아내가 따르는 것이 부부 화합의 도리라는 뜻.

18. 물과 불은 서로 어울릴 수 없다는 뜻.  
19. 서로 성명을 통함.  
20. 총이나 활 따위를 잘 쓰는 사람.  
21. 수입과 지출을 바탕으로 이익이 되는 지를 따져 헤아림.  
22. 물건이나 일이 썩 많이 있음의 비유.  
23. 아직 값지 않음.  
24. 얼굴이 전보다 변해 아름답게 됨.  
25. 우리나라의 국기.

####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 모두 풀 다음 a~c칸을 이어놓으면 꽃 이름이 됩니다.

